

- 이로 인해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크고, 규모가 크지 않은 소매업종(예 : 편의점, 슈퍼, 제과점 등)으로 예상
- 다만, 일부 평균결제금액이 큰 가맹점의 경우에는 금번 조치로 수수료율이 인상될 수 있으나, 대체로 대형업체 위주
- ①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는 가맹점은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서 평균결제금액이 큰(예 : 5만원 초과) 가맹점으로
 - 대체로 자동차, 항공사, 호텔, 대형마트, 면세점, 전자제품 등 대형업체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
- ② 미용실 등 일부 소매업종에서도 가맹점별로 평균결제 금액이 큰 경우 수수료율이 올라갈 수 있으나,
 - 이런 업종의 경우에도 인상되는 가맹점은 대체로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, 인상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
 - (예) 여신협회에 따르면 미용실의 경우 약 98%가 연매출액 5억원 이하로 이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으며, 금번 조치로 인상될 수 있는 가맹점은 평균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하고, 수수료율 인상폭은 0.1%p 미만일 것으로 추정
- 현재 여신협회를 통해 제도개편에 따른 가맹점별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중으로 향후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분석하여 세부 적용방안을 확정할 계획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